

‘함께 동행해요’ ... 복지 향상·사회활동 참여 증진 노력

장애인 생활안정 · 돌봄 수요 증가 추세

남원시가 장애인의 복지향상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목표로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이 함께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장애인복지 정책을 펼쳐 장애인과 서로 함께 동행하는 장애인 친화도시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

남원시에는 7,711명(2021년 11월 기준)의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어 시 인구의 9.6%를 차지하는 적지 않은 수치로 시민 100명당 10명이 장애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장애 유형별로는 지적장애인이 45%로 가장 많고 청각 17%, 발달(지적·자폐성) 9% 순이다.

최근 1인 가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노인인구 비율이 증가하면서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돌봄에 대한 수요 또한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남원시는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195억6,4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이는 사회복지예산 2,050억의 9.3%에 달하는 수치로 세부적으로는 장애인 생활편의 도모와 복지증진을 위한 장애인 연금·장애수당·의료비·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에 97억원을 편성했고, 장애인일자리 18억5,000만원, 장애인단체 사업비 및 운영비지원에 19억2,000만원, 장애인시설 운영비지원에 61억원 등을 편성하는 등 적극적으로 선제 대응하고 있어 남원시의 장애인시책을 살펴본다.



◇장애인들의 생활안정 위한 사회참여 지원
남원시는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고자 장애인일자리 사업 등 다양한 복지사업을 추진하며 관내 장애인 1,210명에게 장애인 연금과 1,541명에게 장애수당을 지급하고, 장애인의료비 지원, 장애인보호기기 교부, 장애인 등록 진단·검사비 등 지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된 미취업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 일자리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에게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보장 지원을 위해 2007년부터 추진 중인 장애인일자리 사업은 장애인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고 ▲일반형일자리(전일제/시간제) ▲복지일자리(참여형)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 및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특화형) 등을 발굴 인원을 선발해 공공기관 및 복지시설 등에 배치, 2021년 총 136명의 장애인을 81개소에 배치하는 장애인일자리사업을 추진했다.

특히 2022년은 취업을 희망하는 장애인들에게 좀 더 많은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45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남원시는 지난 7월부터 장애인거주시설 교대인력 확충을 위해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관내 장애인거주시설 2개소의 입소자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종사자들의 주 52시간 근무 준수를 위해 총 1억4,900만원의 예산을 추가로 지원했다.

이를 통해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들의 근무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중증장애인들에게 특히 취약한 야간시간대의 근무인력 확충을 통해 건강 상태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재난·재해 상황 시에 대처능력을 확보했다.

일반형일자리 등 발굴 인원 선발
올해 136명 공공기관 등 81곳에 배치
191명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
장애인단체 종합회관 등 건립 추진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 개정 시행
심한장애인가구 수도요금 감면

◇장애인 맞춤형 돌봄체계 강화
남원시의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방문목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남원시에서는 191명의 등록 장애인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또한 감염병 대응에 취약한 장애인의 돌봄 공백해소를 위해 코로나 19확진 및 자가격리 시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24시간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장애학생들의 학습보조를 위해 월 40시간의 특별지원금여를 추가로 지원하는 등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다양하게 강화하여 제공하고 있다.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운영 중인 체험휴은 지역사회 안에서 장애인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안전한 보금자리를 제공하고, 궁극적으로는 시설에서 나와 지역주민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장애인 맞춤형 돌봄을 제공하고 있다.

◇남원시민의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및 복지 증진 서비스

남원시는 특별히 올해 장애인 생활의 편의 도모와 복지증진을 위해 ▲장애인단체 종합회



관 건립 ▲지역여성장애인가구 CCTV 설치사업 ▲심한장애인가구 수도요금 감면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전북도에 최초로 건립되는 남원시 장애인어울림센터(가칭)는 국비 5억을 포함한 총사업비 19억3,700만원을 투입, 구 향교동 행정복지센터에 지상3층 연면적 1,090㎡ 규모로 조성



되어 7개 장애인단체의 새로운 보금자리가 될 예정으로, 장애인어울림센터는 단체별 사무실과 교육장, 다목적 강당 등이 조성되며, 연내 준공되어 2022년 2월중 입주목표로 마무리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에 장애인어울림센터가 완공되면 이곳에서 장애인들이 다양하게 소통 화합하게 뒀으로 각종 교육 및 프로그램이 더욱 활성화되는 것은 물론, 관내 장애인들의 정보교류, 사회참여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장애인이 안전한 남원 조성
남원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성폭력 등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재가(在家) 여성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CCTV 설치사업을 추진했다.

이 사업은 지난해부터 시행돼 온 사업으로, 시는 남원경찰서·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의 추천을 통해 우선대상자를 선정하고, 전년 10가구를 지원한 것에서 올해 더욱 확대해 22가구 총 32가구에 CCTV 설치 완료했으며 2022년에도 15가구에 추가 설치 예정이다.

또한 올해 2월부터는 심한장애인가구 수도요금 감면사업도 시행 중이다.

이를 위해 남원시 상수도급수 조례 및 하수도급수 조례 일부 개정을 시행, 심한장애인 가구당 수도사용량 5톤(5,280원) 사용분을 감면해주는 사업으로 매월 10일 전에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같은 감면사업은 경제활동에 취약한 장애인 가구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줘 장애인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김문훈 노인장애인과장은 시 거주 장애인과 관련해 “시에서는 장애인들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며, 예로 “CCTV 설치만으로도 범죄예방에 큰 효과가 있고 사용자의 만족도가 높아 지적·정신 장애인가구 뿐만 아니라 기타 장애인에 의해 범죄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재가 장애인 범죄예방에도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과장은 “시는 앞으로도 장애인이 더욱 행복한 도시가 되도록 장애인들을 위한 사회적 제도를 마련하고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제7회 무주 반딧불이 전국 스키 스노보드 대회

12월 16일(목)~17일(금)
무주 덕유산리조트 스키장

주최: 전주매일신문사
주관: 전라북도 스키협회
후원: 전라북도, 무주군, 무주 덕유산리조트, 전라북도체육회

**참가 문의: 063-288-9700 (전주매일신문사)